

# 마음 열기

찬송가 90장을 함께 부르시다.

고집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나요? 간단히 나누어봅시다.

## 말씀 나누기 누가복음 18장 35-43절,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38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과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삼하7:13-16).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이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즉,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주 메시아임을 믿고 올려드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 것을 달라고 하면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 역사와 은혜를 가장 합당한 때와 방법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기에 구걸하며 모든 길이 막힌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교만과 고집으로 인해 **영의 눈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막히며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비로소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통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며 꾸짖었지만(39절), 그는 포기하지 않

고 더욱 크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이 “네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응답하셨고,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대답했을 때,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41-42절). 놀랍게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당장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버려진 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격 없는 모습 그대로, 바로 지금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격 없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목적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이 이를 보고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43절).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의 상황과 모습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때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직 그분의 합당한 때와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 말씀으로 나아가기

##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나는 기도를 통해 내 소원을 구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나요? 되돌아봅시다.
2.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 낙심되고 흔들렸던 적이 있나요?
3. 나도 해결받고 싶은 삶의 문제가 있나요? 그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내 욕심과 소원을 믿음으로 착각하여 하나님께 강요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2. 교만과 고집으로 영의 눈이 닫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3.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 5월 바이블로 묶어보기 : 출, 신, 아, 사, 딤후, 히

5월의 주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인내의 장소이지만, 반대로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 1. 출애굽기 & 신명기: “광야의 시작과 훈련”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세워진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목전에서 광야 40년의 길을 회상하며 설교합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을 통하여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 2. 아가 & 이사야: “광야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소망”

솔로몬의 아가는 왕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답고 은밀한 사랑의 대화입니다. 왕의 여인을 향한 사랑과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나에게만 보여주는 은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거칠고 험난한 광야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장차 오실 예수님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마치 광야 생활과 같은 현실의 고난과 포로 생활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의 대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 3. 디도서 & 히브리서: “광야를 지나는 성도의 자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경건함’과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세상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 앞에 더 나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험난한 광야의 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읽으며, 지금 나의 고난이 나를 빛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아가와 이사야를 통해, 삭막한 일상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소망을 품고, 디도서와 히브리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FAMILY 나눔

2026년 4월 26일

#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43절

